



굴참나무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학명 : *Quercus variabilis*, 참나무과)

굴참나무는 참나무류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다. 중부 이남 특히 경상도와 강원도에 많으며, 일본, 중국, 대만에도 분포한다. 높이 25m, 직경이 1m에 달하는 낙엽교목으로 용재수종이다. 참나무류이니까 꺾은 없고, 화분만 이용되는 화분원식물이다.

굴참나무는 수피가 회색이며, 콜크층이 발달하기 때문에 두껍고 세로로 깊게 갈라진다. 두꺼운 콜크층 때문에 산불에 견디는 힘이 강하며,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굴참나무 껍질을 벗겨 지붕을 하는데, 이런 집이 소위 너와집이다.

콜크로는 포도주병 마개도 만든다. 포도주가 참나무(oak)로 만든 나무통에 넣어 숙성시켜야 포도주 맛이 좋아진다고 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2시간쯤 가면 주변이 모두 포도밭이 펼쳐져 있고, 농민들은 자기 밭에서 생산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팔고 맛을 보는 시음장(試飲場)도 곳곳에 있으며, 참나무로 포도주 통을 만드는 공장도 있어서 여기서 필요한 오크통을 만들어 공급하는데가 있다.



꽃이 만발한 굴참나무. 주렁주렁 달린 것은 잎이 아니라 모두 꽃이다.

참나무류 기본종 여섯종 중에서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는 꽃이 핀 다음해에 도토리가 열리고, 다른 네 종은 꽃이 핀 당년에 도토리가 열린다. 굴참나무와 상수리나무 잎은 밤나무 잎과 매우 닮았다. 이 두 수종 잎의 거치 끝에는 엽록소가 없어 그냥 희게 보이지만, 밤나무 잎에는 엽록소가 있어서 녹색으로 보이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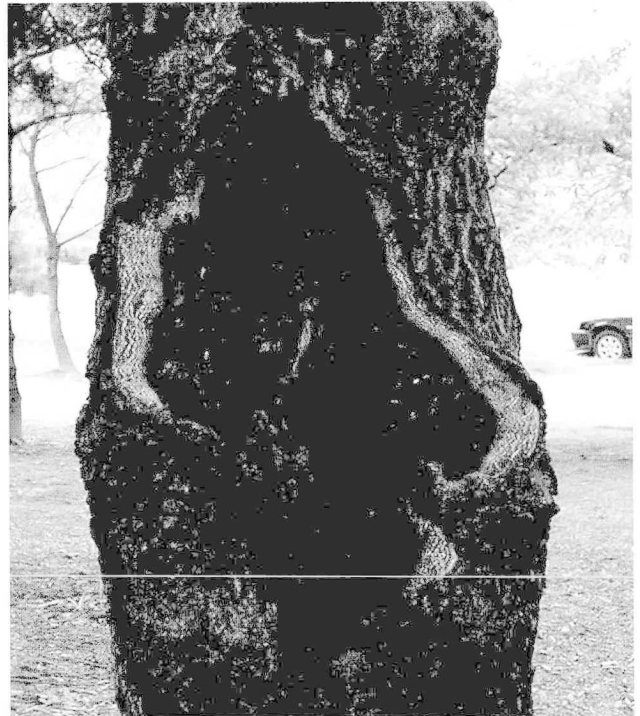


굴참나무의 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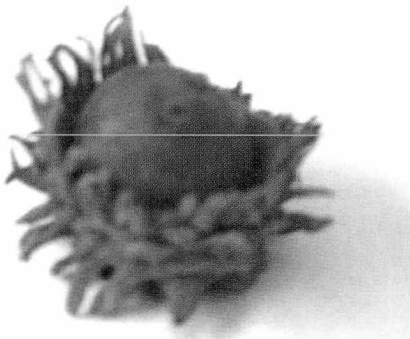
참나무류 나무로 표고버섯을 기른다. 표고버섯균은 사물기생(死物寄生)균으로 참나무류 목재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란다. 표고버섯균이 잘 자라는 환경은 운지버섯 등 다른 균도 잘 자라는 조건이나, 참나무류 목재에 있는 탄닌 성분 때문에 다른 균은 잘 자라지 못하는 반면, 표고버섯균은 잘 자라기 때문에, 참나무류 목재로 이 버섯을 기른다. 참나무류 목재에 있는 이 탄닌은 가죽을 가공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굴참나무를 벌채하면 그 자른 부위에서 많은 줄기가 자란다. 이 줄기 중 몇 개만 자라게 하면 20년쯤 후에는 표고버섯을 기를 수 있는 크기로 자란다. 이런 갱신방법을 맹아갱신(萌芽更新)이라고 한다. 표고버섯을 기르기 적당한 크기(직경 20cm 정도)보다 더 큰 나무는 영지버섯을 기르는데 사용한다.

늦여름부터 꿀벌을 공격하는 말벌은 참나무 숲에 많이 있다. 말벌은 육식 곤충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위하여, 자기 새끼를 기르기 위하여 꿀벌을 공격한다. 화분을 제공하는 굴참나무! 말벌의 집을 제공하는 굴참나무! 양봉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도토리(모든 참나무류의 열매)를 따기 위하여 나무 등치를 돌로 때린 흔적이고, 마을 주변에 많은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가 이런 수난을 당했다.



굴참나무 도토리